당장 가서 엄마 데리고 와!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가족이 생전 처음 서울구경을 와서 백화점에 가게 되었다.

아내가 화장품 매장에서 넋이 빠져 있는 동안 남편과 아들은 신기한 철문 앞에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철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이 신기한 철문은 저절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이 묻자 아빠가 대답했다.

“아들아, 나도 생전 처음 본단다.”

그때 못생기고 뚱뚱한 할머니가 철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철문이 저절로 닫혔다. 아들과 아빠는 닫힌 철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철문 위에서는 1,2 3,4, ……12 하는 식으로 숫자가 깜빡거리며 불이 켜졌다.

한참 후에 숫자가 다시 1로 바뀌더니 철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거기서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빠가 갑자기 아들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가서 엄마 데리고 와!”